

담배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

(Growing Up Without Tobacco)

지난 5월 30일 제11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등 기타 단체들의 후원으로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과 세미나를 가졌다. “담배없이 자라는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세계 금연의 날을 보내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금연에 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현재 우리나라 남학생 흡연율을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 이것은 미국 학생 18%, 일본 학생 22%, 15세의 오스트리아 남학생 29%, 프랑스 남학생 23%, 스페인 2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나 거의 충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담배를 찾게 될까?

청소년 흡연의 시작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 보다는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된다. 성인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사람

으로부터 「어른이 다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파시욕, 호기심,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담배제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용인(Social Acceptability), 담배 판촉활동에의 노출 및 취약성, 이용가능성 및 접근용이성, 부모나 성인에 대한 역할수용(Role modeling), 동료집단의 흡연 등으로 함께 한다.

광고의 역할은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담배광고는 흡연자를 우아하고 인기있고 세련되고 독립적이며 모험적이고 남자다운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담배를 “선택”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이러한 성격들이 자신의 것으로 된다고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는 곧 어른이 되는 행위라고 믿으며 흡연은 더 성숙해 보이려고 하는 시도인 것처럼 받아들이곤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흡연의 사회적 용인과 담배광고의 허용은 일차

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며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한 방편으로 성인 흡연을 줄이고 주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흡연은 즐겁고 도시적이며 서구적인 것?

담배회사에 있어 청소년은 그야말로 장차 “보장된 돈”으로 보일 것이다.

담배회사는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흡연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결국 담배회사의 생존 자체가 새로운 10대 고객에 달려 있는 셈이다. 성인이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담배회사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1984년 한 담배회사의 마케팅 연구자가 중요한 내부 비밀보고서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청소년 흡연자는 지난 50년 동안 모든 주요 브랜드와 회사의 성장과 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담배시장의 재창출은 순전히 18세 흡연자에 달려있다. 단지 5% 미만이 24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다. 18세 흡연자의 브랜드의 집착은 연령에 따라 브



랜드를 교체하려는 어떤 경향을 능가한다. 청소년층 흡연자의 상당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브랜드/담배회사는 힘겨운 전투에 직면한다. 청소년 흡연자들은 단지 흡연자들을 대체할 원천인 것이다. 청소년층이 흡연하지 않는다면 담배회사는 마치 출생이 없으면 인구가 마침내 줄어드는 것과 마찬 가지로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전세계의 많은 10대들은 흡연은 즐겁고 도시적이며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것

으로 그려지는 담배광고에 둘러 쌓여 있다. 몇몇 담배회사는 담배광고에 있어 카툰(Cartoon)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죠 카멜(Joe Camel)” 담배광고는 Joe라는 브랜드의 담배를 18세 이하에서 1% 미만인 점유율을 3년만에 1/3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만화 “카멜”은 3살된 어린아이들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미키마우스와 마찬가지로 친숙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들은 미래의 흡연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을 길들여 놓는데에 혈안이다. 정말이지 담배광고는 안전에 대한 흡연자의 관심을 저하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흡연자나 잠재적 흡연자에게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안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광고가 흡연이 순수하고 양호한 것으로 그리기 때문에 흡연의 위험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담배회사들의 광고는 다양하고 방식도 여러 가지이다. 담배회사에서는 주요 영화에서 자기 제품이 사용되어 보여질 수 있도록 영화제작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자기회사 담배의 제품을 스크린에 끼워 놓는다. (제품배치, Product placement) 미국의 배우는 자신의 영화에서 어떤 담배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받았다.

제품배치를 위한 자금지원은 원고 작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로이스 레인은 흡연자였지만 원본 만화책에서의 로이스 레인은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담배회사의 후원행위 또한 문제이다. 더욱 많은 국가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자 담배회사들은 우회적으로 스포츠나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후원을 함으로써 담배회사들은 자기들 제품을 폭넓게 알릴 수 있고 담배를 건강과 용맹스러움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 홍분, 스피드, 승리 등과 연결된 담배 로고를 목격하게 되는 청소년은 담배에 의한 죽음, 질병, 중독의 실체를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타이완에서는 한 다국적 담배회사가 자기 회사의 빈 담배갑 다섯 개만 가져오면 인기있는 10대 스타가 등장하는 콘서트에 입장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사례가 있다.

학교와 사회의 금연정책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학창시절에 흡연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제도내 통합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흡연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교사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흡연규제 전략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 금연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으로 흡연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통합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즉 학교를 통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는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책임감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대표, 기업체, 종교지도자, 지역청소년 기관, 보건서비스담당자, 스포츠계 인사, 대중매체와 기타 지역사회의 구성원은 금연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흡연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거하려는 지역사회 활동이 학교에서의 교육적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사회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차원만의 금연 노력의 효과는 아주 미약하다. 강력하고 간밀한 지역사회의 담배규제정책과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이것이 완전한 금연을 유도하는 학교에 의해 지지될 때, 학교차원의 금연지도와 교육은 포괄적인 흡연규제 프로그램의 유용한 한 부분이 된다.

강제규정은 중요하다. 담배세율의 인상은 홀륭한 보건정책, 재정정책

따라서 흡연에 대한 학교 정책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제공, 특히 중·고교에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사를 위하여 금연프로그램과 관련된 특별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한 담배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들어온다. 사회적 혜택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높은 흡연을 가져오게 해서 더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고 더 많은 사망과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연결지어, 담배세율의 인상은 홀륭한 보건정책이며 홀륭한 재정정책이 되는 셈이다.

모든 담배소매인은 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법 위반 시 경고에서부터 면허취소까지 세분화된 벌칙조항이 정립되어야 한다. 강제규정은 중요하다. 금연법령에 강제성이 없다면 그들은 이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감시없는 담배의 판매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담배자판기 판매는 금지되어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생의 교내 흡연을 철저히 규제 단속하고 있다. 우리의 사정은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흡연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꺼리고 금연학교 입교나 화장실 청소 등의 징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하고 꾸준한 금연지도로 흡연을 하는 학생에게는 중징계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청소년 흡연은 주로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의 부재에서 파생되기에 흡연 현상 자체만을 따로 떼어 “문제”로 해결하려해서는 안되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세우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

- 서정원